

강원상품권 구매 긴급회의 강경연, 적정성·업계 영향 논의

강원도내 건설단체들이 강원상품권 사용에 대해 긴급회의를 갖는다.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이하 강경연)는 23일 긴급회의를 갖고 강원상품권 구매와 사용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과 업계 입장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강경연은 긴급회의에서 계약금액 대비 최고 8%에 달하는 강원상품권 구매의 적정성,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강경연은 강원상품권 발행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특성상 원도급 업체가 하도급 업체에 강원상품권을 밀어내기 식으로 전가하지 않을 까 우려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자금 순환이라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자칫 강원상품권이 지역의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강경연 관계자는 “강원상품권 발행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들이 상품권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 장치를 우선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알립니다

초록빛 새싹 돌아난 봄날 동료·가족과 함께 달려요



8회 건설인 하프마라톤대회 4월15일 '대한민국 건설 70돌' 맞아 행사 풍성

〈건설경제신문〉이 주최하는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가 오는 4월15일(토)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설산업의 제도약 의지를 다지는 건설인 축제에 장입니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내디딘 후 올해로 8회째를 맞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건설 7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한 이벤트와 한층 더 양해진 경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웃도어 명품 브랜드인 K2의 기능성 티셔츠를 참가자 전원에게 제공하며 전기자전거와 비데 등 푸짐한 경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건설사 임직원 자녀들의 버스킹 공연을 포함한 식전 공연도 볼 만합니다.

가족 단위 참가가 많은 대회 특성을 고려해 어린이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사은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산 베어스 치어리더의 몸 풀기 체조와 OX 퀴즈 등 풍성한 이벤트가 대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예년과 같이 30인 이상 참가 단체에는 참가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부스)을 제공합니다.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설인 하프마라톤 대회에 건설인과 마라톤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4월15일(토) 오전 9시(8시 집결)
- 장소: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평화의광장
- 참가신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cnews-marathon.com/>)
- 신청마감: 3월24일(1만명 선착순)
- 참가부문: 하프, 10km, 5km·4.5km(걷기)
- 주최: 건설경제신문
- 주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후원: 국토교통부, 건설공제조합, 대한건설협회
- 문의: 사무국 (02)785-0582~3



건설공제조합 작년 순이익 1720억원 '사상 최대'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설립 이래 최대규모인 172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이에 따라 15년 만에 최대인 915억원을 조합원에 현금배당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3일 서울 논현동 인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제289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6사업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사진).

조합이 지난해 달성한 당기순이익의 1720억원(전년도 940억원)보다 83%(약 780억원) 늘어난 것이다.

박승준 이사장은 "지난해 적극적인 사전·사후 업무관리로 보증대급금 등 구상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보증위험률을 낮췄다"며 "이로 인해 대손상각비가 601억원 감소하는 등 영업비

전년보다 83%나 급증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구상채권 발생 등 예방 915억 조합원 현금배당

용이 전년 대비 860억원가량 감소한 것이 당기순이익의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조합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53.2%인 915억원을 현금배당기로 했다. 조합원 출자증권 1좌당 배당금액은 2만4000원이다. 박 이사장은 "조합원과 지난해 경영성과를 최대한 공유하기 위해 배당액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앞으로도 우수한 재무건전성 유지와 비용절감을 통해 안정적인 조합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제27대 대한건설협회장에 취임한 유주현 신임 회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유 신임 위원장은 "반세기 넘게 보증·용자업무를 통해 건설업계의 든든한 보호막이 돼 준 조합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난해 사상 최대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수주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합 운영위는 또 정성욱 건설대전시회장(금성백주주태), 오인철 건설 강원도회장(태성종합건설), 윤현우 건설 충북도회장(삼양건설) 등 3명을 운영위원으로 추가 선임했다.

김태형기자 kth@